

청년들의 열정, 대전을 수놓는다

16~22일 대전청년주간행사 개최 V·O·S 박지현 진로토크콘서트에 청춘공방 페스티벌 등 행사 다채

전국의 청년들이 모이는 문화축제가 대전에서 펼쳐진다. 대전시는 16일부터 22일까지 청년공간(4곳)과 은행동 응성이거리 일원에서 2019 대전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대전청년주간은 '낮선 청년들의 새로운 시도'를 주제로 대전과 전국 청년들이 다양한 목소리와 콘텐츠로 한자리에 모이는 청년문화축제다.

청년주간은 16일 청춘너나들이에서 있을 청춘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청춘공방 페스티벌, 진로토크 콘서트, 정책포럼 및 문화행사 등 22일까지 각종 청년문체와 청년활동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21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응성이거리 메인행사에서는 대전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청년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사로는 청년공간 너나들이(탄방동 샤크존2층)에서 16일 유명강사 김창욱 교수와 나와유 협동조합이 힘을 합쳐 청춘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청년들의 학업, 취업, 인간관계, 진로 등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응원을 해주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20일에는 청춘 일일독립영화극장이 진행된다. 8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주저 세대의 아픔을 나타낸 버블패밀리를 시칭한 후 마민지 감독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청춘 두두두에서는 17일 KT&G와 함께 청년공방 페스티벌이 진행되며 다양한 공방 부스와 플라마켓, 포토존 등 청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도 제공된다.

청년공간 청춘정거장에서는 18일 대전 자

치구네트워크 교류회가 열려 대청넷(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들과 자치구 청년들간 교류 및 청년정책의 시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청춘나들목(대전도시철도 대전역)에서는 18일 오후 2시 '다둥이 아빠' V·O·S 박지현이 지역 청년들과 만나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지친 청년들을 위로하는 청년 진로토크콘서트가 열린다. 또 19일 2019청년다움 포럼이 열려 대전청년의 삶을 나타내는 청년보고서 발표와 청년세대에 대한 답변이 마련되며 17일부터 20일까지 청춘나들목 앞 북도에서는 대학생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최명진 청년정책과장은 "2019 대전청년주간은 청년단체, 청년공간, 기관들의 협의로 이뤄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주체인 행사인 만큼 활력 넘치는 행사가 되도록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서지현 기자 jiwon401@ggilbo.com

목원대 미술교육과 졸업전시회

목원대 미술교육과(학과장 강주희)는 17일부터 7일간 교내 미술관에서 '제44회 졸업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술교육과 학생들이 4년 동안 재학하며 배우고 익힌 결실로 서양화와 한국화 등의 작품 34점과 교과교육학 논문 5편이 출품됐다.

권학대 총장은 "졸업작품전이 예술가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교사로서, 예술분야의 전문인으로서 거듭 성장하는데 커다란 초석이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적 감성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내면에 잠재된 예술적 감각을 이끌어 내 미래의 가능성을 일깨워 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내일 학부모 화요아카데미 개최

대전평생학습관(관장 김선웅)은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어울림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화요아카데미를 실시한다.

강연에선 '메타인지를 이해하면 지혜가 보인다'를 주제로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인지심리학 분야의 대가인 김 교수는 강연에서 자녀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과 인지능력을 파악해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부모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관장은 "학부모들이 강연을 통해 자녀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신청은 홈페이지(dllc.or.kr)와 전화(042-220-0574)로 하면 된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제7회 가수원 한가위 축제 성료

대전 서구 가수원동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용소터사람들(대표 김학범)은 지난 14일 마을 주민들과 지역 인사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가수원 한가위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민족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풍성한 먹거리와 풍물놀이, 민속예술공연, 주민장기 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가 어우러져 마을주민 전체가 지역공동체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됐다.

행사에 참석한 장종태 서구청장은 "옛날 용이 살았다는 용소(龍沼) 전설을 상기할 수 있는 이번 한가위 축제를 통해 지역이 할 기찬 기업을 지속되고 지역주민의 안녕과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안경플라너 '사랑의 안경' 기탁 지난 11일 대전 서구청에서 사랑의 안경 기탁식이 열려 안경플라너 유현권 대표(오른쪽)가 장종태 청장에게 1200만 원 상당의 안경을 기부하고 있다. 전달된 안경들은 복지 시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서구 제공

공자 적장손, 충청유교문화 논한다

공수장 봉사관 충청유교 포럼 참석

유교 창시자인 공자(기원전 551~489)의 적장손이 충남을 찾는다. 공자의 79대 종손인 공수장(孔垂長) 대성지성선사봉사관은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회 충청유교 국제포럼에 참석, 양승조 충남지사와 대담을 갖는다.

1975년 타이완 타이베이 출신인 공수장 봉사관은 마지막 연성공(청인의 뒤를 잇다)는 의미로 중국 송대부터 이어져온 공자 종손의 작위로, 1935년부터 대성지성선사봉사관으로 개칭됨을 지낸 조부 공덕성(孔德成)의 뒤를 이어 2009년 봉사관에 임명됐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타이완 최연소 국제교문을 지냈으며 중국 산둥대 명예교수, 국제유학연합회 고문, 곡부사범대학 명예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화대성지성선사공자협회와 지성공자재단 회장직을 맡고 있는 유교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공수장 봉사관은 포럼에서 '소통과 화합, 그리고 상생의 유교문화'라는 주제로 양 지사



공자의 79대 종손인 공수장 봉사관.

와 30여년 간 대담을 갖고 ▲한국과 대만의 유교문화 현황 ▲유교문화와 교류를 통한 양국 및 지역의 상생 방안 ▲미래사회에서 인류의 삶과 행복에 공헌할 유교문화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국제포럼은 충청 유교문화를 안팎에 알리고, 충청유교의 현대적 가치와 역할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교의 상징인 공자의 종손이 충남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ggilbo.com



달빛따라 문화재탐방 동춘당야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 모습. 대전전통나래관 제공

선선한 가을, 달빛따라 문화재탐방 가볼까

대전전통나래관 내달까지 운영

대전전통나래관은 대전시 후원으로 2019 달빛따라 문화재탐방 사업을 실시한다. 달빛따라 문화재탐방은 대전지역의 유서 깊은 문화재를 둘러보며 시민에게는 문화재 향유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전 관광객에게 문화재와 관련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대덕구 동춘당공원(동춘당, 소대현·호연재고택), 동구 우암사적공원(남간정사 등)에서 내달까지 운영된다. 동춘당공원에서는 한밭문화마당 주관으로 문화재 답사

프로그램과 소대현·호연재고택, 동춘당을 배경으로 공연과 특강을 통해 답사 내용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동춘당야행이 펼쳐진다. 또 우암사적공원에서 극단 아인아트컴퍼니 주관으로 '조선시대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콘셉트로 참여형·관람형의 구분을 지어 이머시브 연극으로 우암 송시열의 생애를 살펴보는 우암야행이 실시된다. 박만우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황소 탈게네 느껴졌던 문화재를 조금 더 생생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쉽고 편하게 즐기며 색다른 즐거움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대전대 안보군사연구원,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원장 엄정호)이 최근 '2019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이 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연구거점으로서의 육성 및 우수 학술 연구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보군사연구원은 앞으로 6년간(3년+3년) 1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전인

연구인력 선발은 물론 학제 간 융·복합 연구체제 구축 등 미래 첨단 복합 안보전략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엄 원장은 "중부권 안보 연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안보군사연구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보군사연구원은 지난 2002년 전국 최초로 육군과 협학 하에 군사연구소로 개소했다. 유상영 기자

신석초문학상에 최문자 시인

시집 '우리가 흠친 것들이...' 선정

제4회 신석초문학상 수상자로 최문자 시인의 시집 '우리가 흠친 것들이 만발한다'가 선정됐다.

충남 서천문화원(원장 이관우)과 신석초문학상운영위원회(위원장 나태주)는 올해로 4 회째를 맞은 신석초문학상 수상자 선정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천이 낳은 문인 신석초 선생(1909~1976)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16년 제정된 신석초문학상은 등단 10년 이상 기성 시인이 최근 2년 내 출간한 시집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문자 시인은 1982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후 시집 '귀



안에 슬픈 말 있네', '사과 사 이사이 새' 등을 출간했고, 한성기문학상·박두진문학상·한국여성문학상·한국시립문학상을 받았다.

문학박사로 협성대 문예창작과 교수 및 총장을 역임한 최문자 시인은 현재 배재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올 5월 상재된 '우리가 흠친 것들이 만발한다'는 고통과 사랑을 시라는 형식에 담아 기록해 온 시인의 여덟 번째 시집이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서천문화원에서 열리며, 최문자 시인에겐 상패와 함께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 월 기자 choil@ggilbo.com



배재대 유학생으로 구성된 '유니캡스(Uni-Cops)'가 지난 10일 대전서부경찰서 경관들과 대학 일원에서 추석 명절 예찰활동을 펼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재대 제공

배재대 유학생 '유니캡스' 추석명절 방범활동

배재대 유학생으로 구성된 '유니캡스(Uni-Cops)'가 지난 10일 대전서부경찰서 경관들과 대학 일원에서 추석 명절 예찰활동을 펼쳤다. 유니캡스는 배재대가 2013년 대전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와 유학생 치안을 위해 결성했으며 매년 명절에 맞춰 경찰과 치안협조를 당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유니캡스는 전원 유학생으로 구성된 한국 생활이 낯선 이들에게 연휴기간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배재대는 2011년 대전서부경찰서와 '폴리스 헬프라인'을 구축해 외국인 유학생을 통역요원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나노종합기술원장에 이조원 교수

KAIST 부설 제6대 나노종합기술원장에 이조원 석좌교수가 취임한다.

KAIST는 지난달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6대 나노종합기술원장에 이조원 석좌교수(67)를 선임했고 16일 취임한다고 밝혔다.

이 선임 원장은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오는 2022년 9월 15일까지 3년 동안 나노종합기술원을 이끌게 된다.

이 선임 원장은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금속과학 박사학위를 얻었으며 과학기술부 21세기프론티어사업단 테라급나노소재개발사업단장과 한양대학교 나노융합학과 교수



를 역임했다. 또 국가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에도 참여했다.

이 선임 원장은 "그동안 큰 노력으로 기술원은 나노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소재 기업의 국산화 지원을 위한 12인치 테스트베드 구축,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미래 나노기술을 이끌 인재 양성 등 현재의 많은 대내외 현안들을 슬기롭게 대응해 국가의 나노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술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방문객 11만명 넘어

유류사고 극복 10주년을 맞아 지난 2017년 9월 개관한 충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 현재까지 11만 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문 해설사의 해설 프로그램 제공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70% 증가한 5만 3000여 명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그동안 깨끗한 바다그리기 사생대회, 한여름 밤 영화 축제, 특별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유류사고 극복을 널리 알렸다.

또 지난해 '충남해양환경교육센터'로 지정 받아 해양환경 전문인력 양성과 청

소년 해양환경교육 등을 진행해 해양쓰레기와 해양환경 문제 인식 전파에도 힘쓰고 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계자는 "기념관을 통해 유류피해 극복 및 자원봉사의 정신과 감동을 전달하고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전파할 것"이라며 "유류피해 극복 과정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서해안 유류 유출사고 극복 과정을 기록하고 123만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기 위해 2017년 9월 개관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대전교육청 장애인 15명 채용

대전시교육청은 이달 중 장애인 일자리 사업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 중·경증 장애인 15명을 채용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125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각급학교 및 기관에 배치돼 청소, 배식, 사서, 행정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달 신규 채용하는 직종은 교무보조(1명), 유치원 급·간식보조(1명), 배식보조(2명), 청소보조(7명)이며 대전지역 지정 복지관을 통해 내달 중 희망자를 모집해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부 협조로 오는 11월 최종 적자를 확정하고 12월 근로계약을 체결

할 계획이다.

원시접수 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정 복지관(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동구 아름다운복지관·밀양복지관·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행복한우리복지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고령 근로자 배치가 적합한 학교는 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부 추천을 받아 청소보조 직종 4명을 경증장애인으로 별도 채용하기로 했다. 임기표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